

□ 정년교수 약력 (19명)

* 명예퇴직, 의원면직 포함

○ 동양사학과 이성규 교수

- 1972년 서울대 사학과 졸업. 1984년 서울대 문학박사
- 1979년 부임. 중국고대사 분야
- 서울대 규장각 관장, 역사연구소장. 동양사학회 회장

○ 경제학부 이성휘 교수

- 1968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78년 콜롬비아대 경제학박사
- 1981년 부임. 거시경제학 분야
- 서울대 경제학과장, 금융연구회 회장

○ 심리학과 김정오 교수

- 1969년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1978년 로체스터대 심리학박사
- 1980년 부임. 지각심리학 분야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학생생활연구소장.
한국실험심리학회 회장,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 물리·천문학부 방형찬 교수

- 1968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1981년 워싱턴대 이학박사
- 1983년 부임. 물리학(핵물리) 분야.
- 한국물리학회 중이온가속기 추진위원장

○ 물리·천문학부 소광섭 교수

- 1968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1974년 브라운대 이학박사
- 1979년 부임. 한의학물리, 생물물리학 분야.
- 서울대 사범대학 교무부학장, 물리교육과장.
한국창의력교육학회 부회장, 한국물리올림피아드 부위원장

○ 물리·천문학부 홍종배 교수

- 1972년 서울대 물리교육과 졸업. 1982년 조지아대 이학박사
- 1983년 부임.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
- 서울대 학생부학장, 물리교육과장, 물리·천문학부장.

○ 지구환경과학부 전종갑 교수

- 1968년 서울대 천문기상학과 졸업. 1987년 위스콘신 메디슨대 이학박사
- 1989 부임. 대기역학 분야.
- 서울대 대기과학장, 한국기상학회 회장, APEC 기후센터 이사장.

○ 건설환경공학부 박창호 교수

- 1970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1977년 텍사스대 공학박사
- 1978년 부임. 교통공학 분야.
-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장, 환경종합연구소장.
대한교통학회 회장, 대학토목학회 회장

○ 재료공학부 김환 교수

- 1968년 한양대 요업공학과 졸업. 1976년 도쿄공업대학 공학박사
- 1976년 부임. 무기재료합성 분야
-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장, 신소재공동연구소장.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홍상희 교수

- 1972년 서울대 응용물리학과 졸업. 1978년 콜로라도주립대 공학박사
- 1979년 부임. 핵융합플라즈마 분야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 산업·조선공학부 이면우 교수

- 1968년 서울대 섬유공학과 졸업. 1979년 미시건대 공학박사
- 1971년 부임. 인간공학 분야

- 서울대 공학연구소장, 대한산업공학회 회장.

○ 산업·조선공학부 장창두 교수

- 1973년 서울대 조선공학과 졸업. 1980년 도쿄대 공학박사
- 1981년 부임. 선박구조공학 분야.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장,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
- 국제선박해양구조회 상임이사.

○ 약학과 고광호 교수

- 1969년 서울대 약학과 졸업. 1981년 루지애나주립대학 약리학박사
- 1982년 부임. 약물학 분야
-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장, 한국응용물리학회 회장, 한국뇌학회 회장,

○ 작곡과 장정의 교수

- 1975년 서울대 작곡과 졸업. 1985년 슈투트가르트대 음악학석사
- 1989년 부임. 작곡 분야
- 서울대 작곡과장, 작곡 동인 미래악회 회장, 범음악제 위원장

○ 의학과 연경모 교수

- 1970년 서울대 의학과 졸업. 1981년 서울대 의학박사
- 1978년 부임. 방사선(소아방사선) 분야
- 대한방사선의학회 이사장

○ 의학과 이건욱 교수

- 1967년 서울대 의대 졸업. 1981년 서울대 의학박사
- 1978년 부임. 간외과 분야
- 한국간담체외과학회 회장, 대한소회기학회 회장

○ 의학과 이진학 교수

- 1972년 서울대 의대 졸업. 1981년 서울대 의학박사

- 1980년 부임. 안과학(각막 및 백내장) 분야
-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 의학과 정명희 교수

- 1971년 서울대 의대 졸업. 1981년 뉴욕주립대학 의학박사
- 1982년 부임. 생화학, 약리학(산소라디칼독성학, 분자약리학) 분야
- 서울대 부총장 및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 대한약리학회 회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 의학과 조보연 교수

- 1971년 서울대 의대 졸업. 1980년 서울대 의학박사
- 1979년 부임. 내과학(갑상선) 분야
- 서울대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회장,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대한갑상선학회 회장, 아세아-대양주 갑상선학회 회장

○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 1968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1974년 텍사스대 환경공학박사
 - 1982년 부임. 환경공학 분야
 -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환경계획연구소장.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 사무총장
- 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장

○ 치의학과 양재호 교수

- 1970년 서울대 치의학과 졸업. 1979년 서울대 치의학박사
- 1979년 부임. 치과보철학, 금관가공의치학 분야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연수원장,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대한치과임플란트학회 회장

○ 치의학과 장영일 교수

- 1970년 서울대 치의학과 졸업. 1980년 서울대 치의학박사

- 1980년 부임. 치과교정학(교정생리학, 악기형교정학) 분야
- 서울대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부학장.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 치의학과 정종평 교수

- 1969년 서울대 치의학과 졸업. 1979년 서울대 치의학박사
- 1978년 부임. 치주과학(치주성형, 임플란트) 분야
- 서울대 치과대학장, 치과대학 교무부학장.
대한치주과학회 회장, 대한응용생체공학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면 교수

- 1973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2년 하버드대 법학박사
- 1982년 부임. 국제법 분야
- 서울대 공법학과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2011. 3. 1. 명예교수 추대자 명단

대학	학과(부)	직 급	성 명	비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 성 휘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前 교수	정 운 찬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김 정 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교수	방 형 찬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교수	소 광 섭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전 종 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前 교수	김 구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김 환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홍 상 희	
공과대학	산업·조선공학부	교수	장 창 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연 경 모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이 건 욱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이 진 학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정 명 희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 정 욱	
치의학대학원	치 의 학 과	교수	양 재 호	
치의학대학원	치 의 학 과	교수	장 영 일	
치의학대학원	치 의 학 과	교수	정 종 평	
계			18명	

정년교수 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총장님, 부총장님, 내외 귀빈, 동료 교수, 가족 그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학과 김정오 교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퇴임하시는 스물 네 분의 해방동이 교수님을 대표해서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이지만 부담스럽습니다. 2011년에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기쁨을 모태에서 누렸습니다. 저희들은 서울대학교와 같은 나이입니다. 이런 뜻에서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의 삶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구정, 가족 모임이 끝날 무렵 누님께서 언제 퇴임하느냐고 물으시기에 말씀드렸더니 “정오야,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떤 말보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했구나!” 그러나 곧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그 답을 실험으로 찾는 학문입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교육, 연구 조건이 없었더라면, 동료 교수의 격려와 배려가 없었더라면, 잠재적으로 우수한 학부, 대학원생이 없었더라면, 교육과 연구를 성심껏 지원하는 교직원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저와 우리들은 헛수고 했을 것입니다. 수십 편의 실험 논문들을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국의 훌륭한 저널에 실험 논문들을 발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립대학교나 지방대학교에 있는 제자 교수들의 열악한 교육, 연구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제공한 훌륭한 조건들 때문에 우리들의 학문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저와 함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 훌륭한 조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대 초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도서관 난간에서 구호를 외치던 학생이 아래로 떨어지는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교수, 학생 모두 민주화의 꿈과 전문 교육과 연구의 꿈을 연결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의 희생의 댓가로 얻어진 지난 십 수 년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고민과 갈등과 걱정이 없이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 여건도 매우 나아졌습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한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2차 대전 후 150여 개국 중 식민의 압제와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해내지 못한 민주 혁명을 두 번이나 해내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단점을 치열한 교육과 근면한 노동으로 극복한 우리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로 31년을 보내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나이보다 훨씬 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캠퍼스에 넘치는 젊고 활달한 열기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열기에 동화하니까 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늙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저뿐 아니라 퇴임하시는 모든 교수님들이 답해야 하는 물음입니다. 얼마 전 아흔 다섯이신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정년 전부터 목표를 가지고 제 3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년 후의 삶은 퇴임하는 저희 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에게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입니다. 명예교수 회보를 보니 선배 교수님들의 학술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글로 발표하시고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답게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수학과와 모 명예교수님은 2007년 한 해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정말로 따르고 싶은 모범이십니다. 미국 심리학자 중 90세에도 좋은 실험 논문을 발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명예교수 회보에 실린 칼럼과 제언을 읽고 학술활동 내용을 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은 은퇴하신 후에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님 모두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모범이 되시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시리라 믿습니다. 명예교수님들의 깊고 놀라운 통찰과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다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명예교수님들의 좋은 제언들이 서울대학교의 발전에 귀하게 쓰이리라 믿습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저희 교수들에게 최상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신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교육과 학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학문을 앞세운 저희들을 사랑과 존경과 희생으로 도운 가족에게 감사합니다.